

# 台灣海峽兩岸의 發展經驗으로 본 中國統一\*

張 虎

- |                           |                         |
|---------------------------|-------------------------|
| I. 中華民國의 台灣地區<br>에서의 發展經驗 | III. 台灣海峽兩岸의<br>發展經驗 比較 |
| II. 中共의 大陸에서의 發展經驗        | IV. 結 論                 |

비록 台灣海峽兩岸의 인민이 모두 中國人이고 같은 文化背景을 가지고 있지만 40여년의 分斷으로 말미암아 兩岸間에 상당한 격차를 초래하였다. 台灣海峽兩岸 모두에서 직접 생활한 경험이 있는 卜及夫선생의 관찰에 따르면 台灣海峽兩岸 각각 7가지 奇蹟을 낳았으나 서로 다른점은 台灣이 낳은 奇蹟은 긍정적인 것이고 中共이 낳은 奇蹟은 부정적인라는 것이다. 그가 台灣에서 발견한 7가지 奇蹟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가 台灣 南投縣 鹿谷鄉에 있는 茶葉合作社를 參觀할때 그 合作社 農民의  $\frac{1}{10}$  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그가 高雄에서 소박한 차림새의 시골 農家의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의외로 그 할머니는 아주 호화로운 花王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셋째, 그가 南投縣 鹿谷鄉에서 방문한 3명의 농민의 가옥은 마치 이전의 上海 租界地에 있었던 外國 資本家の 집처럼 호화로웠다.

네째, 그는 高雄 제련공장 노동자의  $\frac{1}{10}$  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이 論文은 第11次 韓中學術會議에서 主題發表된 것임.

다섯째, 이렇게 조그마한 섬나라 台灣에 2,500여종의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여섯째, 台灣 각계각층의 議會 民意代表들은 議會內에서 욕하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자유롭게 활동한다.

일곱째, 台灣의 外換保有庫가 700억달러이상의 놀라운 수준이다.

中共이 大陸에서 이룩한 부정적인 7가지 奇蹟을 나누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共은 大陸에서 일찌기 없었던 平和時期에 殺人을 하는 大奇蹟을 이루었다.

둘째, 中共은 大陸에서 ‘人釘人’ (相互監視)의 大奇蹟을 이루었다.

셋째, 근 28년간 법률이 시행되지 않는 大奇蹟을 이루었다.

네째, 文化大革命 10년동안 文藝創作活動을 할 수 없는 大奇蹟을 이루었다.

다섯째, 가장 많은 配給票(糧票, 布票, 肉票) 制度를 만들었다.

여섯째, 사람을 압박하여 죽게 하는 奇蹟을 이루었다.

일곱째, 냉혹한 權力鬭爭의 奇蹟을 낳았다.<sup>1)</sup>

왜 40년이 지난 지금, 台灣海峽兩岸에 이처럼 큰 차이가 생겨났는가? 本論文은 먼저 40년이래 台灣海峽兩岸의 發展經驗에 대해 간단히 회고한 후에 台灣海峽兩岸의 發展經驗을 종합하여 比較分析하고 마지막으로 兩岸發展의 상당한 차이로부터 미래의 中國統一의 展望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 中華民國의 台灣地區에서의 發展經驗

中華民國의 台灣地區에서의 發展經驗중 가장 두드러진 分野는 바로 經濟分野라 할 수 있다. 그 發展過程을 거슬러 올라가면, 1949년 國民政府가 台灣으로 옮긴 후 실시한 土地改革에 이른다. 1949년에 실시한 ‘三七五 租稅減免’ 조치로 부터, 1951년의 公地放領 및 1953년의 農地는 農民에게라는 조치를 통하여 農村社會를 개혁하고 農民生活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구성된 中國農村復興委(즉 ‘農復會’)는 政府가 農村지도자를 육성

1) 卜及夫, 「海峽兩岸의 七大奇蹟」, 台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83, pp.1-23.

하는데 협조하였다. '農業으로써 工業을 육성하고, 工業으로써 農業을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지도원칙하에, 농업은 한편으로 공업발전에 필요한 資金과 原料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은 공산품의 주요 시장이 되었다. 中華民國 政府는 1953년에 제1차 경제개발 4개년계획을 실시하여 系統的인 공업발전을 이루었다. 1953년부터 1974년까지 연속적으로 5번의 경제개발 4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1976년 새로운 경제개발 6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제 1차 세계 석유파동후의 國際經濟 불황을 극복하였고, 또한 國家 10大 建設計劃을 실시하여 台灣의 公共施設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다. 1982년에 또 경제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2大 建設事業을 추진함으로써 工業, 交通, 및 電力분야의 발전을 加東化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農業, 社會 및 文化방면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1953년에서 1982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國民總生產의 연평균 成長率은 8.7%에 이르렀고 그중 1963년부터 1972년까지의 成長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연평균 10.8%의 成長을 이루었다. 그리고 1982년의 國民總생산은 1952년의 12배였다. 이와 동시에 工業 또한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여 1953년부터 1982년사이 工業의 연평균 成長率이 13.3%에 달했으며 총생산액은 41여배나 증가하였다.<sup>2)</sup>

台灣 經濟構造의 대대적인 轉換이 이루어진 후, 1970년 이후부터 國際貿易에서 거의 매년 수출초과상태로 접어들게 되었고, 通貨膨脹 또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49년의 통화팽창율은 30%에 달했으나 60년대에 와서 1.9%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4년과 1975년의 제1차 석유파동 때 통화팽창이 다시 고개를 들었으나 금방 하락하였다. 1960년대초 이래 台灣의 資本은 거의 모두 國民저축에 의해 형성되었다. 1966년이래 台灣의 저축율은 國民總생산액의 20%이상을 유지하였으며, 1982년까지 근 10년 동안 30%를 초과하였다. 1980년 台灣의 外換保有庫는 70억 달러였으나

2) 高棣民原 著, 艾思明譯, 「從國家與社會的角度觀察-台灣奇蹟」, 台北, 洞察出版社, 1987. p.3.

1984년 8월에는 157억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1984년부터 1989년 사이의 짧은 4, 5년의 기간동안에 外換保有庫는 이미 760억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sup>3)</sup>

고도의 경제성장이 台灣사회 각 방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먼저 人口構成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일찌기 1951년 台灣의 출생율은 대략 1000分の 50, 사망율은 1000分の 11.6이었으나 1978년에 이르러 출생율과 사망율은 각각 1000分の 24.6, 1000分の 4.8로 하락하였으며 자연증가율 또한 100分の 38에서 1000分の 20으로 하락하였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바로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사망율의 하락은 老年人口의 증가를 초래하여 총인구중 65세이상의 인구비율을 매년 증가시켰고 평균수명도 늘어났다. 남자의 평균수명은 53세에서 69세로 늘어났고, 여자는 57세에서 74세로 늘어났다. 따라서 남녀의 평균수명은 각각 16년, 17년 늘어났다.<sup>5)</sup> 老年人口의 증가는 비록 사회부담을 가중시켰지만, 오히려 사회진보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現代化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現代化 과정중의 교육수준의 상승은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교육은 現代化의 原因이자 結果이다. 통계에 의하면 1950년 台灣의 총학교수는 1504개에서 1979년에 이미 3배 이상 증가하여 4950개에 달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수에 있어서는 1950년 교사 1명에 학생 36.35명에서 1979년 학생 27.74명으로 하락하였다. 학생수를 볼때 1950년 人口 1千명에 평균 재학중인 학생이 140명이었으나 1979년에는 265명으로 증가하였고,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취학율 또한 80%에서 99.7%로 증가하였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1950년 전문학교 및 대학교가 7개, 학생수는 7千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1979년에 이르러 전문학교 및 대학교는 이미 101개로 증가하였고 대학원 또한 192개나

3) *Ibid.*, p.4.

4) 蔡文輝, '我國現代努力的過去, 現在與將來', 「海峽兩岸社會之比較」, 台北, 東大圖書公司, 1988, pp.46-47.

5) *Ibid.*, p.47.

생겨 학생수가 33萬명에 이르게 되었다.<sup>6)</sup>

국내 교육수준의 보편적인 향상외에 특히 중요한 것은 해외유학생이 귀국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근래에 들어서는 모두 收容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195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정부가 유학을 허가하여 출국한 총유학생수가 57,128명에 달했고, 그중 남성이 64.7%를 차지하며 理工계통 전공자가 가장 많아 유학생 總數의  $\frac{1}{4}$  을 차지하며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이 제일 많다. 귀국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학생이 부단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국내 국민소득의 증가로 대량의 유학생들이 다투어 귀국하여 취업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국민소득의 증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조건이 이미 先進國수준임을 아울러 반영하는 것이다.<sup>7)</sup>

政治는 經濟와 社會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條件을 創出해야 하고, 經濟와 社會는 政治가 自由民主의 방향으로 가도록 引導해야 한다. 中華民國의 台灣地區에서의 발전경험에 있어 初期에는 비록 權威的이고 專制的인 色彩가 농후했지만, 이같은 權威와 專制는 경직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개방적이고 개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政府가 1949년 台灣으로 옮겨진 후 前任 蔣介石 總統의 領導하에 그 개인의 名望으로써 一切의 국가 最高정책을 결정하였으나 결코 獨裁政治를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발전환경을 造成하였다. 경제발전은 社會構造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그것은 국민소득의 보편적 증가 및 교육수준의 향상이었고 그 결과로 사회내에 中産層 人口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中産層은 국가발전, 경제번영, 사회안정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정치가 政治民主와 사회안정 및 번영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台灣의 政治는 이미 經濟와 社會의 눈부신 발전으로 말마암아 원래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정책결정과정으로

6) *Ibid.*, p.48.

7) *Ibid.*, p.50.

로 전환하였다. 오늘날 中華民國의 모든 정책은 정부가 먼저 결정하여 人民들로 하여금 實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民間에서 여론이 조성된 후 비로소 정부가 정책으로 制定, 施行한다.<sup>8)</sup>

## II. 中共의 大陸에서의 發展經驗

中國의 傳統文化가 中國人の 마음에 깊게 내재해있는 까닭에 中共이 大陸에서 共產主義를 전파할때 가장 먼저 파괴하려는 것이 바로 中國傳統文化와 社會構造였다. 毛澤東은 일찌기 ‘舊文化를 타파하고 新文化를 建設하자’는 주장을 제창했는데, 소위 舊文化란 中國傳統文化를 일컫는 것이며 新文化란 共產主義文化를 말하는 것이다. 1949년 中共이 中國大陸을 점령하여 政權을 수립한 후, 40여년 동안 그들이 일으킨 以下の各種 運動은 中國傳統社會에 대한 打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土地’는 中國傳統社會와 文化의 기본구성요소이다. ‘土地’의 再分配는 社會와 文化의 철저한 변화를 의미한다. 中共은 일찌기 1946년에 그들의 根據地에서 ‘土地革命’을 展開한 적이 있다. 1949년 中共은 政權을 수립한 후, 3억인구에 달하는 中國大陸 全域에 걸쳐 ‘土地改革’을 수행하였으며, 만약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民主改革’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다. 따라서 1950년 6월 30일에 또 ‘中華人民共和國 土地改革法’을 公布하였으며 아울러 同年 8월 4일에 國務院을 통하여 ‘農村 階級成分 區分에 관한 決定’을 발표하고, ‘地主階級の 封建的 착취의 土地所有制를 폐지하고 農民의 土地所有制를 실시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전면적인 ‘土地改革運動’을 전개하였다. 또 清匪反霸 (土匪를 清算하고 霸權主義를 반대함), 減租退押 (租稅를 減免하고 부당하게 저당잡힌 것을 돌려줌), 階級에 따른 農土分配, 復查發證 (다시 조사하여 증명서를 발부함) 등의 단계를

8) 張虎, ‘從台海兩岸政治發展看大陸探親之影響’, 第九屆 中韓學術會議 論文,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동하여, 또 清算鬭爭, 掃地出門의 방식으로써 地主土地 7억畝를 몰수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中共의 '土地改革' 運動하에서 全大陸의 4000여萬 地主와 富農중 살해된 地主는 500萬名에 달하였다.<sup>9)</sup> 中共의 '土地改革' 運動은 '抗美援朝'의 필요에 의해서 1952년에 앞당겨 완성되었으며, 또한 이 '土地改革'은 中國農村의 傳統的 社會制度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1950년 7월 26일 中共이 '反革命的 鎮壓에 관한 指示'를 발표한 후 '反革命 鎮壓運動'은 全大陸 各 도시에 全面的으로 展開되었고 1951년 2월에 中共이 '反革命 처벌條例'를 공포함으로써 그 기세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 運動에서 中共의 鎮壓對象은 다음과 같다. '反革命 特務分子', '反動黨 骨幹分子', '反動 道會門分子', '反動 地主分子', '反動을 고집하는 蔣介石 軍政人員'과 土匪惡霸 등등. '反革命 鎮壓' 運動중 中共에 의해 處刑된 수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中共은 '反革命 鎮壓' 運動을 일으킨 것과 동시에 '土地改革運動' 외에도 新婚姻法運動, 民主改革運動, 司法改革運動 및 宗教改革運動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反革命 鎮壓'에 관련된 범위는 대단히 넓어 거의 모든 反對者 및 異質分子가 鎮壓對象에 속하게 되었다.<sup>10)</sup>

1951년 가을 中共은 各級 機官幹部를 對象으로 하여 東北地區에서 '三反' 運動(反貪污, 反浪費, 反官僚)을 일으켰다. '三反'의 目的은 資產階級의 思想에 젖어 부패하고 타락한 일부분의 貪污, 浪費, 官僚主義分子들을 政治적으로 改造하거나 혹은 法律的으로 制裁를 가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동시에 中共은 한국전쟁의 軍비지출을 보충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第 1次 5개년계획을 준비하였으며 또 資產階級의 실탕과 옷을 필두로 한 공격을 격퇴한다는 핑계를 내세워 大陸의 私營 商工業者들에 대해 '五反運動' 즉 反行賄(뇌물을 주지 않는다), 反偷稅(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다), 反竊盜, 反偷工(노동자를 빼앗지 않는다) 등을 전개하였다. 中共의 통계에 따르면 北京, 上海, 天津 등 9개 도시에서 '三反', '五反' 運動을 통하여 재산

9) 張敬文, '共匪의 五大運動', 「共匪政治問題論集」, 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5년, pp.1-83.

10) *Ibid.*, pp.83-84.

을 차압당하거나 검거된 商工業者는 45萬여戶에 달한다.<sup>11)</sup>

위에서 상술한 세가지 運動외에 知識分子를 主要對象으로 하는 ‘思想改造運動’ 과 ‘抗美援朝運動’을 포함하여 ‘五大運動’이라 부른다. 上述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中共이 일으킨 ‘土地改革運動’의 目的은 地主階級을 소멸시키는데 있고, ‘反革命 鎮壓運動’의 目的은 모든 계급의 異質分子를 소멸하려는 것이며, ‘三反’, ‘五反’運動의 目的은 民族資產階級에 타격을 가한 後日에 民營 商工業을 집어 삼키고 資產階級을 소멸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다. ‘思想改造運動’의 目的은 知識分子들을 장악하여 全大陸 人民들의 思想을 철저히 改造하려는 것이며, ‘抗美援朝運動’의 目的은 民間財産을 빼앗아 戰費를 충당하고 동시에 知識分子와 人民들 사이에 팽배한 親美·崇美思想을 없애고 仇美·反美감정을 촉발시키기 위함이다.

1952년말 中共은 그들이 일으킨 ‘土改’, ‘三反’, ‘五反’ 등 일련의 運動이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고 ‘過渡時期 總路線’을 발표하여 ‘이 過渡時期에 黨의 總路線과 總任務는 상당한 장기간내에 점진적으로 社會主義 工業化를 실현시키고 아울러 점진적으로 國家가 農業, 手工業 및 資本主義 商工業에 대한 社會主義 改造를 실시하는데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위 ‘社會主義 三大改造’이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中共의 ‘三大改造’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원래 계획보다 약 10여년을 앞당겨 완성하여 그 속도는 東歐 共產國家보다 빨랐다. ‘三大改造’의 早期 完成으로 말미암아 毛澤東은 빠른 시일내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1958년에 ‘社會主義建設 總路線’, ‘工農業生產 大躍進’과 ‘人民公社’의 구호를 등장시켰는데 이것이 ‘三面紅旗’이다.

中共의 ‘三面紅旗’는 비록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실시되었지만 오히려 大陸經濟 전반에 걸쳐 일찌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를 미쳤고 中共의 政治的 威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그 피해는 실로 헤아리기

11) *Ibid.*, pp.85-86.

어렵다. 1959년 7월 彭德懷는 글로써 毛澤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몇의 生産指標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원래 몇년 혹은 십몇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1년 혹은 몇개월만에 완성해야 하는 指標로 책정되어 있으며’, ‘각종의 과장된 말이 各地, 各部門을 덮고 있다. 몇몇의 믿을 수 없는 奇蹟들이 신문지상에 실리고 있어 실로 黨의 威信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으며 현재 各方面的 報告書를 살펴보면, 共產主義가 금방 도래할 기세라 많은 同志들로 하여금 상당히 열광케 하고 있다. 식량, 면화생산의 증가와 2배이상의 鋼鐵生産이라는 상황속에 浪費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低質의 農作物을 秋收하고 生産費를 고려하지 않으며 가난한 생활을 마치 부자나 된듯 날뛰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武昌會議과 今年 1월의 省市書記會議때까지도 여전히 形勢의 眞象을 全部 밝혀내지 못한 점이다.’ 1961년 劉少奇가 胡南에서 ‘人民公社’를 視察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大躍進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니 실로 한 차례의 大破壞라 할 수 있다. ……秦始皇, 隋煬帝는 무너진 長成과 運河를 수리하기 위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 또 말하기를 ‘大躍進’은 ‘財政과 經濟를 대단히 곤란케 했으며’, ‘특히 經濟를 붕괴국면으로 접어들게 했다’, ‘三力(人力, 物力, 財力)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7·8년이 지난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71년 林彪의 ‘五七一工程紀要’에 의하면 ‘수많은 人民이 압박을 받았고 국민경제는 정체상태에 이르렀고’, ‘人民의 生活水準이 하락하였으며’, ‘農民은 먹기도 입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노동자의 임금동결은 또 하나의 변형된 착취와도 같았다.’<sup>12)</sup> 上述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三面紅旗’는 全大陸 人民과 社會에 막대한 파괴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中共當局 자체에도 하나의 거대한 충격이었다. 毛澤東은 잠시 2선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政權을 劉少奇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彭德懷를 주축으로 한 反毛集團의 반격도 시작되어 이후 毛澤東과 反毛勢

12) 陳定中, ‘共匪의 總路線, 大躍進, 人民公社運動’, 「共匪政治問題論集」, p.141.

力간에 파상적인 長期鬭爭이 전개되었다.

'文化大革命'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근 10여년간 전개되었다. 中共 中央은 각종 鬭爭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다소의 억울한 사건과 잘못된 사건을 청산하고 劉少奇, 吳晗등 투쟁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재평가하였다. 또한 中共 中央은 '建國이래의 약간의 歷史問題에 관한 決議'를 통해서 '文化大革命이 國家와 人民에 대해 建國이래 가장 심대한 좌절과 손실을 입혔음'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中共이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反省하든지간에 '文革'이 中國 및 中國人에 끼친 피해는 영원히 보상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 鄧小平 또한 '文革 10년은 스스로 災難을 자초하여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sup>13)</sup>

그러면 1949년이래 '五大運動', '三大改造', '三面紅旗' 및 '文化大革命'을 거치면서 그들이 끼친 結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첫째로 20여년동안 經濟는 쇠퇴하고 生産力은 저하되었으며 人口는 2배로 증가되어 人民의 생활은 점점 악화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의 분위기는 대단히 긴장되고 냉혹해졌으며 靑年들은 共產黨에 실망을 느껴 共產黨에 대한 信仰과 信心에 막대한 危機를 초래하였고, 대부분의 婦女子들도 온화한 여성다운 성격을 상실하였으며 많은 社會團體들도 社會와 멀어지게 되었다.

1978년 鄧小平이 復權하여 '開放改革' 政策을 표방하였다. 비록 그의 改革政策은 生存을 위해 힘쓰고 있는 中共政權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6·4' 사건이후 中共은 또 다른 헤어나오기 어려운 困境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 Ⅲ. 台灣海峽兩岸의 發展經驗 比較

40여년이래 台灣海峽兩岸의 發展은 經濟부문 혹은 非經濟부문을 막론

13) 汪學文, 「中共文化大革命史論」, 台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89년 4월, p.2.

고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만약 鄧小平의 '實踐은 眞理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라는 말로써 台灣海峽兩岸의 발전 결과를 검증한다면 軍事 및 소수의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만 大陸이 台灣을 앞서고 기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台灣이 大陸을 앞서고 있다. 특히 經濟와 政治發展에 있어 大陸은 台灣보다 2·30년정도 낙후되어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台灣海峽兩岸에 이처럼 큰 차이가 생겼는가? 1949년 中共이 大陸을 점령하고 國民黨이 台灣으로 옮겼을 때 당시 쌍방의 조건은 거의 비슷했다. 당시 大陸은 戰亂으로 民生은 형편없었고 台灣은 변방에 위치하여 中國內陸의 어느 省보다 가난하고 낙후되었다. 1949년 쌍방의 발전에 필요한 객관적인 조건은 거의 흡사하였지만 어째서 4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치는 동안 台灣海峽兩岸에 서로 완전히 다른 현상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본 논문은 먼저 1949년 이후 兩岸의 發展過程중 相以한 점을 比較, 分析하려 한다. 上述한 바를 종합하면 兩岸의 發展에 있어 다음과 같은 相以點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國共 쌍방 모두 1949년 이후의 경제발전은 일종의 計劃經濟, 즉 政府로부터 모든 발전계획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계획의 목표와 실행방식은 차이가 있었지만 '計劃經濟'는 줄곧 國共 쌍방의 발전전략이었다.

둘째, 國共 쌍방의 '경제계획'은 모두 195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다. 中共의 제1차 5개년 계획과 國民黨의 제1차 4개년 계획은 모두 1953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兩岸의 발전의 초기상황은 극히 相以하였다.

셋째, 國共 쌍방의 발전계획은 모두 農業으로부터 着手하였고 또한 모두 土地改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農業으로써 工業을 육성한다는 초기 발전 전략에 있어 中共이 大陸에서 실시한 것은 격렬한 방식으로써 대단히 빨리 農業을 포기하고 全力으로 工業發展에 힘썼다. 이것은 國民黨이 台灣에서 실시한 平和의이며 漸進의인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네째, 國共 쌍방의 발전계획은 초기에 있어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획방식이었다. 즉 當局者의 주관적인 意志와 '明智抉擇'은 한 사물의 兩

面으로 작용하여 人民은 근본적으로 政策決定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다.<sup>14)</sup>

다섯째, 國共 쌍방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외부의 經濟와 技術援助를 받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았다.<sup>15)</sup> 中共은 소련의 원조와 군사적인 보호가 있었고 台灣은 미국의 원조와 안전보장이 있었다.

만약 단순히 以上の 相以點으로써 兩岸의 발전을 관찰한다면 40년이 지난 지금 마땅히 中共은 台灣보다 발전이 빨라야 하고 台灣보다 번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大陸의 土地및 資源이 台灣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40년후의 大陸이 台灣보다 근 20여년이나 낙후하게 되었는가? 그 주요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海峽兩岸의 발전이념이 완전히 달랐다. 中華民國은 三民主義의 理論에 의해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私有制를 채택하였으며 국가의 民生 정책과 관련된 것이나 민간의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만 국가가 직접 경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私營을 장려하였다. 私有制는 台灣經濟의 奇蹟을 창출하는 기본조건으로써 자본과 노동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다. 반면에 中共은 共產主義를 채택함으로써 일체의 생산수단을 國有化하였고 어떠한 私營企業의 存在도 허용하지 않았다. '大鍋飯'의 규제하에 자본과 노동력은 충분히 이용될 수 없었으며 人民에 대한 물질적인 誘引과 자극을 缺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했다. 따라서 경제가 쇠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兩岸의 政治發展은 40여년간의 經濟發展을 결정한 주요 요소이다. 40여년간의 兩岸의 政治를 종합해서 관찰해보면 中共은 40여년의 발전과정중 줄곧 각종 정치운동과 투쟁을 전개한 까닭에 人民은 투쟁청산의 공포속에서 생활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社會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

14) 張虎, '從台海兩學政治發展看大陸探親之影響', 第九屆 中韓學術會議論文,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5) 故棟民原著, 艾思明譯, 「從國家與社會的角度觀察-台灣奇蹟」, 台北, 洞察出版社, 1987년, p.12.

다. 반면에 台灣은 40여년동안 비록 政治上의 波動은 있었지만 결코 社會安定이나 經濟發展을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台灣은 줄곧 '안정속의 발전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다. 台灣의 政治發展은 經濟 및 社會發展과 상호 因果關係를 이룬다. 政治는 경제를 위한 발전조건을 창출하고 경제는 또 정치 민주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하여 中共의 부단한 투쟁과는 완전히 다르다 할 수 있다.

세째로, 사람을 管理하는 능력 또한 兩岸의 발전과정에 있어 주요한 결정 요소이다. 소위 사람을 管理하는 능력은 지방의 基層 公務員과 幹部의 자질이다. 왜냐하면 中央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지방 공무원과 간부들의 집행으로써 관철될 수 있어 基層 공무원의 자질은 정책의 成敗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中共은 1950년대에 解放軍이 基層幹部의 역할을 했으며 비록 中共이 大陸을 점령한 초기에는 大陸人民을 위해 단기적인 안정을 가져왔지만 共軍의 자질이 보잘 것 없는 것이라 武力으로써 治安을 유지하려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武力으로써 번영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 台灣은 日本統治時期에 이미 地方行政 方面에 있어 하나의 官僚體系를 확립하였으며 더우기 1945년 國民黨 政府를 따라 台灣으로 온 정치엘리트들이 健全한 官僚體制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둘수 있었다.

네째, 台灣과 大陸의 物理的 환경이 같지 않다. 大陸은 방대한 지역과 인구로 말미암아 적은 자원으로 各地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어려워 중요 도시와 소수의 사람들의 우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과 人民들은 아직도 빈곤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台灣은 자원이 有限하지만 지역이 협소하고 人口가 적어 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各 地方에 균형있게 분배할 수 있다. 中共의 자원은 원래 부족하여 몇몇 첨단과학분야의 발전을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분야는 台灣보다 낙후된 실정이다. 40여년간의 中共의 발전 경험은 수많은 人民들로 하여금 의식주 해결에 급급하게 만들었지만 台灣의 발전 경험은 전체 人民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台灣의 발전은 持續性이 있는 반면 大陸의 발전은 정치투쟁으로 말미암아 斷續的이었다. 大陸에서의 발전 형태는 일종의 파상적인 것이라 어떤 때는 大改造, 어떤 때는 大躍進, 또 어떤 때는 學大寨, 또 어떤 때는 開放改革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방향의 상실을 가져왔고 따라서 人民들은 어떻게 할지 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中共 幹部들조차도 적용할 방법이 없다. 全大陸은 이러한 사회주의하에서 作業의욕과 열의를 상실했다. 그러나 台灣에서는 일련의 장기발전방향틀을 세워 지금까지 정부는 이 발전 방향에 따라 '안정속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비록 台灣의 정치담당자가 수차례 바뀌었지만 정책은 시종 그 持續性을 유지하고 있다. 40여년 동안 台灣의 발전은 경제위주의 '經濟掛帥' (경제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종 大陸은 모든 것은 반드시 政治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政治掛帥'를 견지하고 있다.

여섯째, 海峽兩岸은 外國援助를 취득한 방법과 그 운영에 있어 같지 않다. 비록 中共과 國民政府는 초기에는 모두 外國援助를 받았으나 소련의 中共에 대한 援助는 기본적으로 軍事援助를 중시한 까닭에 비교적 일찌기 중단되었다. 또한 소련의 援助동기는 기본적으로 軍事上에만 있어 결코 中共의 發展期間에 필요한 市場이 되어주지 못하였다. 中蘇대립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악화된 후 소련은 援助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中共에 타격을 가했다. 반면에 미국의 台灣援助는 한편으로 자금과 기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상당히 큰 상품 수출시장을 제공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세계 무역에서 경공업 상품에 대한 수요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수출제한폭의 축소로 특징지어지는데 台灣은 이 기회를 통해 대폭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中共은 이 시기에 政治運動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며 경제발전도 중공업 위주였으므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여 발전의 好機를 놓치고 말았다. 비록 1970년대말과 80년대에 들어서서 中共은 경공업발전을 꾀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수출을 강조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다.

#### IV. 結 論

上述한 海峽兩岸의 40여년 동안의 발전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분명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大陸은 40여년 동안 줄곧 부단한 政治運動속에서 생활해왔고 台灣은 줄곧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sup>16)</sup> 兩岸의 발전이론과 발전수단은 각각 달라서 발전초기의 상당히 많은 相以點에도 불구하고 40여년이 경과한 후 兩岸의 發展 결과는 오히려 상당한 차이를 초래하게 되었다. 아마 정치제도, 사회제도, 가치관의 비교로부터는 兩岸발전의 현저한 차이를 분명히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실제 경제 건설의 결과로부터 兩岸의 優劣을 쉽게 검증할 수 있다.

근래 大陸의 發展은 확실히 進展이 있지만 台灣은 발전의 속도를 더 빨리하고 있다. 1985년 8월 李總統은 ‘大陸 經濟改革과 台灣 經濟發展戰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海峽兩岸의 발전의 뚜렷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每年 개인실질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台灣이 20배의 증가, 大陸이 3배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밝히고 따라서 ‘大陸이 共產主義 建設을 실행한 결과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sup>17)</sup>

中華民國의 台灣에서의 經濟奇蹟이 결코 정부나 인민들로 하여금 中國統一을 잊게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中國統一’은 처음부터 정부나 인민들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目標였다. 中華民國의 中國統一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부단히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中華民國이 추구하는 統一의 目標과 方式이 中共과 다른 것이다. 中華民國이 추구하는 것은 長治久安(영원히 안정적인)적인 統一이다. 따라서 統一은 단지 長治

16) *Ibid.* p.3. 1990年 10月 16日 行政院長 郝柏村은 中華民國 현재의 경제정책의 기본정신은 ‘안정속의 성장추구’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17) 李總統 專題演講... ‘下放案共產主義的經濟改革終歸失敗’, 「大陸經濟改革與台灣經濟發展策略」, 台北, 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5년 11월, p.3.

久安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中共이 추구하는 統一은 단순한 것으로서 統一이 目的이자 수단이다. 비록 海峽兩岸이 추구하는 것은 서로 같지만 추구하는 방식에서 각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 주요원인은 兩岸이 40여년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쌍방의 객관적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하나는 안정되고 번영된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하고 낙후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實踐이 眞理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라는 말로써 40여년의 발전을 비교해 보면, 台灣이 大陸보다 확실히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만약 中共이 誠意를 가지고 中國의 長治久安적인 統一을 위해 공헌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中國統一' 및 '台灣不獨立'의 공통된 인식하에 中華民國이 政治·經濟 및 外交상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외에 또한 中共내부에서도 철저히 각종 改革을 실시하여 海峽兩岸의 民間交流를 통하여 兩岸의 人民들이 장기간의 交流過程에서 스스로 中國統一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sup>18)</sup> 이 같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中國統一이 바로 全民의인 統一이며 비로소 長治久安의인 統一이다. 그러나 海峽兩岸 當局이 용감하게 忍耐와 사랑으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렇게 해야 비로소 中國에 진정한 平和統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中國은 반드시 統一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統一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現在도 또한 가까운 미래도 아닌 兩岸 人民의 공통된 인식하에 일단의 장기적인 모색 과정을 거쳐 海峽兩岸의 水準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統一을 이루게 될 것이다.

18) 張虎, '開放探親對中國統一問題的影響', 「中國大陸研究」, 1989년 6월, 第31卷 第12期, p.59.